

[보도자료]

이 자료는 2009년 10월 23일(금)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“제1차 여성부-한국여성정책연구원간, 정책연구협의회 개최”

- 여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간 정책현안 및 향후 정책연구방향 논의

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.

배 포 처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

배포 날짜 : 2009년 10월 23일(금)

언론 담당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

(연락처: 02-3156-7296, 이메일: info@kwdimail.re.kr)

□ 여성부(장관 백희영)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(원장 김태현)은 10월 23일(금) 오후 4시에 여성부 회의실에서 제1차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.

제1차 여성부-한국여성정책연구원간 정책연구협의회 개최

- 일 시 : 2009. 10. 23(금), 16:00~18:00
- 장 소 : 여성부 대회의실
- 참석자
 - 여성부 : 백희영 장관, 황준기 차관 외
 -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 : 정택환 미래전략연구센터 소장 외
 - 한국여성정책연구원 : 김태현 원장 외

□ 여성부(장관 백희영)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(원장 김태현)은 10월 23일(금) 오후 4시에 여성부 회의실에서 제1차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.

□ 이날 회의에는 백희영 여성부 장관, 황준기 여성부 차관, 정택환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 미래전략연구센터 소장,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하여 각 기관 실·국장급들이 대거 참석하였다.

□ 본 회의는 국책연구원의 정책연구가 부처의 정책수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부처와 국책연구원간의 정책연구협의회 일환이다.

□ 이날 회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09년 정책연구 과제 추진현황 및 연구결과와 2010년 계획을 설명하고, 여성부의 정책현안, 정책연구수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.

□ 이날 회의에서 백희영 장관은 “여성정책 분야는 발전 가능성이 많은 분야이지만, 환경 변화에 따른 부침이

큰 분야인 것도 사실”이라고 지적하며, “현재 가족과 청소년 및 아동 업무 이관이 논의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여성과 가족정책의 연계를 위한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의 발굴이 중요해질 전망”이라고 설명했다.

□ 또한 백희영 장관은 “오늘 여성정책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이 자리에서 발전적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.”고 회의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.

□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“오늘 이 자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보다 여성부의 정책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여 여성부 주요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자 여성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마련된 첫 번째 정책연구협의회”라고 밝히며, “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전에도 여성부와 정책협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.”고 설명하며, “오늘 이렇게 정책연구협의회라는 공식적인 첫 회의를 기반으로 앞으로 정례화를 통해 더욱 체계적,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.”고 정책연구협의회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.

- 정택환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 미래전략연구센터 소장은 “그동안 연구기관이 많은 역할을 해 왔으나 정책 수요자에게 높은 평가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 정부도 연구원에 관심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”이라고 밝히며, 이런 괴리를 메우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정책연구협의회를 정례화·제도화 하려 한다.”고 설명했다.
- 황준기 여성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“현재 여성부가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사실.”이라고 밝히며, 앞으로 좀더 씩씩하게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.”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.

<회의순서>

- 인사말 : 백희영 여성부 장관
황준기 여성부 차관
정택환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 미래전략연구센터 소장
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연구 현황, 2010년 계획 설명
: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
- 여성부 의견 개진
(2009년 과제 및 2010년 과제에 대한 여성부 의견)
- 마무리

한국여성정책연구원

한국여성정책연구원(원장 김태현, www.kwdi.re.kr)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,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-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,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,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.

보도자료 끝.